

#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와 의미: 형태적 실현성\*

홍정하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Jungha Hong.** 2010. Subject-Object Asymmetries of NPs without Markers and their Meaning: *Morphological Realization*. *Language Information*. Volume 11. 119-138. Most of previous studies regard Korean NPs without markers as case marker drop, and subject-object asymmetries as the markedness on overt and covert case markers. This paper aims to explore what subject-object asymmetries of NPs without markers mean in Korean markers system, as found in the 21 Century Sejong Treebank. An interesting observation is that these phenomena are related to the markedness on morphological realization and non-realization in Korean markers system. This seems to be an evidence that NPs without markers are not case marker drop.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for Language & Information, Korea University**)

**Key words:** Subject-Object Asymmetries, NPs without Markers, Morphological Realization, Markedness, Grammatical Relation, Definiteness, Treebank

## 1. 서 론

한국어 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무조사구, 즉, 체언에 아무런 조사도 결합되지 않는 체언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를 관찰하고 있는 Lee(2006)는 무조사구를 격조사 생략으로 보고, 주로 체언에 격조사가 결합되는 격조사구 분포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와 관련한 논의에서 보조사가 결합되는 보조사구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는 근거는 대체로 두 가지 관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sup>1)</sup>

---

\*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kleist@korea.ac.kr). 이 논문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1) 이 논문에서는 체언에 결합되는 조사 유형에 따라 격조사구, 보조사구, 무조사구로 구분하며, 격조사구와 보조사구를 통칭하여 조사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형태론적 차이만을 지시할

첫째, 격조사구와 보조사구를 서로 다른 격 실현 체계로 본다. 보조사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는, -도’와 구조격 조사 ‘-가, -를, -의’가 체언구에 함께 표지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가 형태론적 판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형태론적 판형을 이용한 가설은 이 조사들이 동일한 형태론적 판(slot)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중 하나의 조사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Yang 1972).<sup>2)</sup> 이 가설은 한편으로 경쟁 관계의 격 실현 체계로서 보조사와 격조사를 설명하는 기반이 된다. 이 가설과 관련하여 격 실현을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대체로 격조사구는 격조사에 의해 형태적으로 격이 실현되는 것으로, 그리고 보조사구는 추상격이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동일한 형태론적 판에 속해 있는 보조사 ‘-는, -도’와 격조사 ‘-가, -를, -의’가 함께 표지되면 서로 다른 성격의 격이 실현되어 비문법적인 구성이 되는 것으로 본다(최기용 2006).

둘째, 무조사구를 격조사가 생략(Lee 2006, Ahn & Cho 2007 등) 또는 비실현되는(임동훈 2004, 최기용 2007 등) 체언구로 파악한다. 이는 격조사의 본질적 특성이 명시적으로 격을 표지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기초한다. 즉, 격조사구는 무조사구와 비교하여 격의 형태적 명시를 제외하고, 동일한 문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본다.<sup>3)</sup> 그래서 격조사를 명시적 격표지(case marker)로, 무조사를 비명시적 격표지로 간주한다. 이에 기반하여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 현상을 대체로 명시적인 격표지와 비명시적인 격표지의 대립적 분포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영희 1991, 홍용철 1994, Lee 2006, Ahn & Cho 2007 등).

한편, 격 실현(case marking)<sup>4)</sup>, 태(voice) 등과 같은 언어 체계에서 지시성과 관련된 유표적 성분이 무표적 성분보다 형태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범언어적으로 관찰되고 있다(Aissen 1999 등). 만약 무조사구의 비대칭 현상을 이와 같은 형태적 복잡성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한다면, 형태적으로 더 부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유표성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이는 무조사구의 비대칭 분포를 명시적인 격표지와 비명시적인 격표지의 유표성으로 파악하는 기존 논의와는 다른 관점이다. 그 이유는 기존 논의에서 간과해왔던 보조사구를 형태적으로 더 부가된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 통사론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2) 이 조사들은 조사 배열에서 가장 후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3) 이와 다른 관점의 연구는 4장에서 논의한다.

4) 이 논문에서는 case marking에 해당 하는 용어를 ‘격의 표지’ 또는 ‘격 표지’ 대신, ‘격 실현’으로 사용한다. 이는 격표지(case marker)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며, 한국어 격조사를 유일한 명시적 격표지로 보는 관점과도 명백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성에 대한 의미를 명시적인 격표지에 따른 유효성으로 보거나, 형태적 실현성에 기반한 유효성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가 한국어에서 분명하게 관찰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하에 무조사구의 비대칭 분포를 척도로 사용하여 유효한 무조사구의 대립 관계를 탐색하고, 이 비대칭 분포의 의미 및 무조사구와 관련된 한국어 격 실현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보다 객관화시키기 위해 본 논문은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에서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로 구성된 주어와 목적어를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무조사구, 격조사구, 보조사구의 분포를 관찰한다.

## 2.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성

### 2.1. 분포적 특성

한국어 무조사구 주어-목적어 비대칭성 분포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체로 무조사구를 격조사 생략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하며, 비대칭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고 있다. 첫째, 통사론적 측면에서 무조사구 분포가 주어보다 목적어에서 우세하다는 것으로 무조사구의 일반적이지 전체적인 분포 경향을 나타낸다. 김영희(1991), 홍용철(1994), Kim(2000) 등은 무조사구 분포의 비대칭성에 대한 통사론적 근거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은 보충어 자리에 위치하며, 일반적으로 어순상 서술어와 인접하는 목적어에서 무조사구 분포가 우세한 반면, 지정어 자리에 위치하고, 일반적으로 어순상 서술어에 인접하지 않는 주어는 무조사구 분포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2-가)에서 주어 무조사구 ‘그 애’는 비문인 반면, (2-나)에서 목적어 무조사구 ‘책’은 허용된다고 본다. 물론 김영희(1991)과 홍용철(1994)는 주어의 격조사 생략은 비문법적으로 보나, 대체적으로 주어와 목적어에서 모두 격조사 생략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다(최기용 2007, Ahn & Cho 2007 등).

- (1) 무조사구 분포의 비대칭성에 대한 통사론적 설명
  - 가. 격조사는 보충어 자리에서 탈락할 수 있고,  
지정어 자리에서 탈락할 수 없다(홍용철 1994).
  - 나. 논항이 서술어와 인접할 때 격이 생략될 수 있다.

(Kim 2000, 김영희 1991).

(2) 김영희(1991)의 예

가. 그 애가/\*그 애 책을 읽는다.

나. 그 애가 책을/책 읽는다.

둘째, 개별 체언의 특성에 따라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분포 경향은 상이하  
다. 이는 유표성 위계 (3)과 관련된다. 한정성 위계 (3-가)와 문법관계 위계  
(3-나)의 유표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각 위계에서 무표적 성분 사이에,  
그리고 유표적 성분 사이에 분포적 연관성이 있다.<sup>5)</sup> 예를 들어, 한정성 위계  
(3-가)에서 상위의 대명사는 문법관계 위계 (3-나)의 주어로 분포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한정성 위계 (3-가)에서 하위의 일반명사는 문법관계 위계 (3-나)  
의 목적어로 분포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유표성 위계는 대체로  
체언의 분포와 관련되지만, 무조사구의 분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주어에서 대명사의 무조사구 분포가, 그리고 목적어에서 일반명사의  
무조사구 분포가 선호된다(Lee 2006).<sup>6)</sup>

(3) 유표성 위계

가. 한정성: 대명사 > 고유명사 > 일반명사

나. 문법관계: 주어 > 목적어/비주어

유표성 위계에 기반한 무조사구 분포적 경향은 일반적인 무조사구 분포를  
제시한 통사론적 연구와도 일치한다. 전체 체언구의 분포 중에서 일반명사로  
구성되는 체언구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명사의 무조사  
구 분포가 전체 체언구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명사의  
무조사구 분포는 목적어에서 선호되므로, 이를 일반적인 체언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일반적인 무조사구 분포는 주어에 비해 목적어에서  
우세한 분포 (4)를 보이며, 주어에서는 대명사가 가장 우세한 무조사구 분포  
(5-가)를, 그리고 목적어에서는 일반명사가 가장 우세한 무조사구 분포 (5-나)

5) 홍정하(2009)에서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문법관계, 의미역, 정보성 및 지시성의 상관적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6) Lee(2006)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에 대한 무조사구 분포를 인칭(person), 한정성(definiteness)  
및 유생성(animacy)의 위계로 구분하여 관찰하고 있다. 1인칭은 3인칭에 비해, 대명사는 일반명사  
에 비해, 그리고 사람 명사는 무정성 명사에 비해 주어에서 무조사구 분포가 우세하며, 반대로  
목적어에서는 3인칭, 일반명사, 무정성 명사가 가장 우세한 무조사구 분포를 보인다.

를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무조사구 분포 위계 (4)와 문법관계별 무조사구 분포 위계 (5)가 한국어에서 관찰되고, 이 분포가 주어와 목적어에서 한국어 격 실현 체계를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2.2절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 가지 대립 관계를 상정하고, 4절에서는 무조사구 비대칭 분포가 관찰되는 대립 관계를 검토한다.

- (4) 일반적인 무조사구 분포 위계: 목적어 > 주어
- (5) 문법관계별 무조사구 분포 위계
  - 가. 주어: 대명사 > 고유명사 > 일반명사
  - 나. 목적어: 일반명사 > 고유명사 > 대명사

## 2.2. 명시적/비명시적 격 실현의 관점

한국어에서 무조사구를 격조사가 생략 또는 비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지배적인 경향으로 인해, 대체로 명시적인 격의 실현을 격조사구로, 그리고 비명시적인 격의 실현을 무조사구로 한정하고, 이들의 분포를 토대로 주어-목적어 비대칭성을 관찰하고 있다.<sup>7)</sup> 이는 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한국어 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무조사구의 분포를 측정하여 제시한 Lee(2006)에서도 확인된다.<sup>8)</sup>

이처럼 무조사구 비대칭 분포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체로 무조사구와 격조사구의 분포적 특성에 주로 집중할 뿐, 또 하나의 형태적 격 실현 체계인 보조사구의 분포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는 최기용(2006)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간의 연구에서는 격의 실현과 관련하여 보조사구에 대한 드문 논의에 기인한다. 그러나 무조사구 비대칭 분포의 관찰에서는 보조사구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표적 성분이 무표적 성분보다 형태적으로 더 복잡해진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Aissen 1999 등), 보조사구에 대한 관점에 따라 무조사구의 대립 관계는 기존 논의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무조사구의 비대칭 분포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

7) 이는 격 실현 차원의 접근이라기보다 격표지 차원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8) Lee(2006)에서는 전체 주어와 목적어에 대한 무조사구 분포 비교에서는 보조사구와 격조사구를 모두 포함한 조사구 전체와 무조사구를 비교하고 있으나, 인칭, 한정성, 유생성에 따른 무조사구 분포 비교에서는 보조사구를 제외한 격조사구와 무조사구만을 비교하고 있다.

- (6) 가. 어머니-{가/\*를/는/∅} 오셨다.  
나. 밥-{\*가/를/는/∅} 먹었다.

기존 논의에서 명시적 격표지를 격조사로, 그리고 비명시적 격표지를 무조사로 구분하는 것은 격 표상의 고정성에 근거한다. 즉, 격조사는 특정 문법관계를 나타내나, 무조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사도 무조사와 마찬가지로 (6-가)의 주어와 (6-나)의 목적어에 두루 나타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형태적 복잡성에 따라 무조사의 대립 관계를 설정한다면 이는 형태적 실현성에 기초한다. 즉, 격조사 ‘-가, -를’ 과 보조사 ‘-는’ 은 형태적으로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며, 이는 무조사와 구분된다.

이를 토대로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대립 관계를 세 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무조사구와 격조사구의 대립 관계이다. 이 관점은 기존 논의와 동일한 것으로 격 표상의 고정성과 형태적 실현성의 양립 조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둘째, 격조사구의 대립 관계는 무조사구와 보조사구 전체이다. 이는 격 표상의 고정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셋째, 무조사구의 대립 관계는 조사구, 즉, 형태적으로 조사가 실현된 격조사구와 보조사구 전체이다. 이는 형태적 실현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대립 관계를 통해 무조사구 분포의 상대빈도를 측정한다. 상대빈도의 본질적 특성은 특정 속성을 공유하는 대립 관계의 집단들을 비교한 분포값이므로, 측정된 상대빈도는 무조사구의 대립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대립 관계가 정확하다면, 그리고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가 한국어에 관찰되는 현상이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립 관계에서 기존 논의의 관찰과 동일한 비대칭 분포가 관찰될 것이다. 이 연구는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가 한국어에서 관찰된다는 가정 하에, 세 가지 대립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척도로 이 비대칭 분포를 활용한다.

### 3. 연구 대상 자료

#### 3.1. 자료 처리

이 논문에서 관찰하는 분포 정보는 한국어 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구축된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에서 추출된 것이다.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는 827,881

어절, 73,824 문장의 규모이며, 문장당 평균 어절수는 11.214 어절이다<sup>9)</sup>. 또한 책,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 및 상상, 인문, 문화생활, 사회, 과학 등의 다양한 장르에 걸쳐 생산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7)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의 예

; 어머니 보시는 그 소설책 좀 빌려 주세요.

(VP (VP (NP\_OBJ (S\_MOD (NP\_SBJ 어머니/NNG)  
(VP\_MOD 보/VV + 시/EP + 는/ETM))  
(NP\_OBJ (DP 그/MM)  
(NP\_OBJ 소설/NNG + 책/NNG)))  
(VP (AP\_AJT 좀/MAG)  
(VP (VP 빌리/VV + 어/EC)  
(VP 주/VX + 시/EP + 어요/EF + .SF))))))

특히,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는 각 어절마다 형태분석 및 구문분석 정보가 부착되어 있어 형태 및 구문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7)은 ‘어머니 보시는 그 소설책 좀 빌려 주세요.’의 구문분석 예이다. 모든 어절은 기본적으로 형태분석이 되어있으며, 체언구(NP), 용언구(VP)와 같은 구문표지 및 주어(SBJ), 목적어(OBJ)와 같은 기능표지가 병기되어 있다. 이 예에서 무조사구 ‘어머니’와 ‘소설책’은 각각 주어 체언구(NP\_SBJ)와 목적어 체언구(NP\_OBJ)로 분석되어 있다.<sup>10)</sup>

본 연구에서는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성의 두 가지 측면의 분포적 특성, 즉, 일반적인 분포적 특성과 한정성에 따른 분포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로 분석된 체언구 중에서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로 구성되는 체언구의 조사 실현 유형을 추출한다.<sup>11)</sup> 특히, 각 품사와 조사 실현 유형 사이의 분포적 특성을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단일 체언에 하나의 조사로 또는 무조사로 구성되는 격조사구, 보조사구, 그리고 무조사구만을 추출한다. 물론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에는 두 개 이상의

9)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의 문장 길이는 대체로 “짧음(10어절 이하) : 중간(11 ~ 15어절) : 길(16어절 이상) = 2 : 1 : 1”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어 문장 길이의 분포를 통해 구문 환경의 다양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10)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홍규 외 (2007)와 홍정하 외(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본 논문의 분포 정보는 Python을 이용하여 구현한 도구를 사용하여 추출된 것이다.

체인 또는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된 체언구, 격조사 및 보조사가 함께 표지된 체언구, 또는 둘 이상의 보조사 또는 격조사가 표지된 체언구도 분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성의 분포는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가급적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각 품사와 조사의 고유한 분포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함이다.<sup>12)</sup>

(8) 연구 대상 체언 어절의 구조

가. 무조사구: 체언

나. 보조사구: 체언 + 보조사

다. 격조사구: 체언 + 격조사

이와 같이 하나의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로 구성된 체언구 중 관찰 대상으로 하는 조사 실현 유형은 아무런 조사도 표지되지 않는 무조사구 (8-가), 하나의 보조사만이 표지된 보조사구 (8-나), 그리고 하나의 격조사가 표지된 격조사구 (8-다)이다.

<표 1>은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에서 추출된 주어와 목적어로 분석된 어절 구조 (8)의 어절 분포이다. 연구 대상 자료는 약 12만5천 어절이며, 이 중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로 구성된 어절의 분포 비율은 각각 11.01%, 7.75%, 81.24%로, 전체 체언구의 분포적 특성이 일반명사 구성 체언구에 의해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품사별 주어-목적어 분포

문법 관계	주어		목적어		합계	
	빈도	상대빈도	빈도	상대빈도	빈도	상대빈도 (품사별)
대명사	11,225	81.35%	2,574	18.65%	13,799	11.01%
고유명사	7,935	81.69%	1,778	18.31%	9,713	7.75%
일반명사	48,170	47.32%	53,633	52.68%	101,803	81.24%
체언구(합계)	67,330	53.73%	57,985	46.27%	125,315	100.00%

12)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에서 주어와 목적어로 분석된 체언구 중 격조사 또는 보조사가 두 개 이상 결합된 분포는 약 0.53%이다.



### 3.2. 자료의 특성

그런데 특이한 점은 <표 1>의 주어 분포에서 고유명사가 81.69%로 대명사의 81.35%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한정성이 강할수록 주어 분포 경향이 강하고, 한정성이 약할수록 목적어 분포 경향이 강한 유표성 위계 (3)의 상관적 분포 원리와 차이가 있다. 즉, 한정성이 강한 대명사의 주어 분포가 이 보다 한정성이 약한 고유명사보다 우세함이 예측되지만, <표 1>에서는 이 예측과 다른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 대상 자료의 고유명사와 대명사의 주어 분포는 특이하다 하겠다.

홍정하(2009)에서는 이러한 고유명사의 특이한 분포를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에서 고유명사로 분류되는 체언의 의미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에는 사람 지시 체언이, 목적어에는 사물 지시 체언이, 그리고 용언수식어에는 장소 지시 체언이 우세한 분포적 경향을 보이는데,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의 고유명사는 주로 인명과 지명으로 구성되어 사물 지시 어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물 지시 어휘가 있는 대명사와 일반명사와 달리 목적어에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인다.<sup>13)</sup> 이렇게 고유명사를 구성하는 어휘의 의미부류가 제한적이라는 분포적 특성은 한정성과 문법관계 분포와 관련하여 고유명사를 대명사 및 일반명사와 직접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sup>14)</sup> 그래서 이 논문은 한정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고유명사의 분포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직접적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 논문의 관찰 대상 자료가 문어라는 한계가 있다. 권재일(2006)에 의하면 문어에 비해 구어의 무조사구 분포가 약 5배 정도 많다고 한다.<sup>15)</sup> 이처럼 무조사구는 구어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문어 텍스트에서 무조사구 분포가 전체적으로 적다고 해도,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가

13) 홍정하(2009)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뿐만 아니라 용언수식어를 포함하여 품사별 문법관계 분포 위계를 관찰하고 있다. 주어의 품사별 분포 (i)에서는 한정성 위계와 동일하게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 순의 분포를 보이나, 목적어의 품사별 분포 (ii)에서는 한정성 위계의 역순과 다르게 고유명사가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다. 이에 비해 용언수식어의 품사별 분포 (iii)에서는 한정성 위계의 역순으로 품사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 문법관계별 체언 품사의 분포 위계(홍정하 2009: 240)

(i). 주어: 대명사(62.22%) > 고유명사(58.60%) > 일반명사(30.62%)

(ii). 목적어: 일반명사(31.35%) > 대명사(14.23%) > 고유명사(12.88%)

(iii). 용언수식어: 일반명사(38.03%) > 고유명사(28.52%) > 대명사(23.55%)

14) 한정성 위계와 관련한 고유명사의 분포적 특성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15) 권재일(2006)에서는 구어에서 무조사구 사용은 27.94%, 문어에서 무조사구 사용은 3.54%로 제시하고 있다.

무조사구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면 무조사구 분포의 비대칭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어 텍스트라고 해서 유독 주어에서만, 또는 목적어에서만 무조사구의 분포가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연구한 Lee(2006)은 주어 1,260 어절, 목적어 696 어절, 총 1,956 어절의 비교적 적은 규모를 관찰한 것이므로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총 12만5천 어절 규모의 주어와 목적어를 대상으로 한 관찰인 만큼, Lee(2006)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Lee(2006)은 구어 텍스트의 특성을, 본 연구는 문어 텍스트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4. 격 실현의 명시성과 비명시성의 조건

비록 한국어 연구에서는 대체로 격표지의 명시성에 따라 구분되는 분포로 간주되고 있지만,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는 격 실현의 명시성과 비명시성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범언어적으로 알려져 있다(Comrie 1978, Silverstein 1976, Dixon 1994, Aissen 2003 등). 4절에서는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의 격 실현의 명시성과 비명시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2.2절에서 제시한 형태적 실현성과 격 표상의 고정성에 따라 구분되는 세 가지 대립 관계를 검토한다.

##### 4.1. 형태적 실현성과 격 표상의 고정성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에 대한 대립 관계로 무조사구와 격조사구를 간주하는 것은 보조사구를 이들과 다른 성격의 체계로 가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다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보조사구에 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격이 실현되는 무조사구 및 격조사구와는 전혀 다른 체계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임홍빈(1999)와 홍용철(2005)에서 확인된다.<sup>16)</sup> 둘째, 보조사구에 격이 실현되나, 격 실현 방식에서 다른 체계로 보는 것이다. 무조사구를 격조사 생략 혹은 비실현으로 보는 관점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된다. 생성 문법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보조사구는 추상격에 의해,

16) 홍용철(2005)에서는 보조사 ‘-는’ 이 결합되는 보조사구만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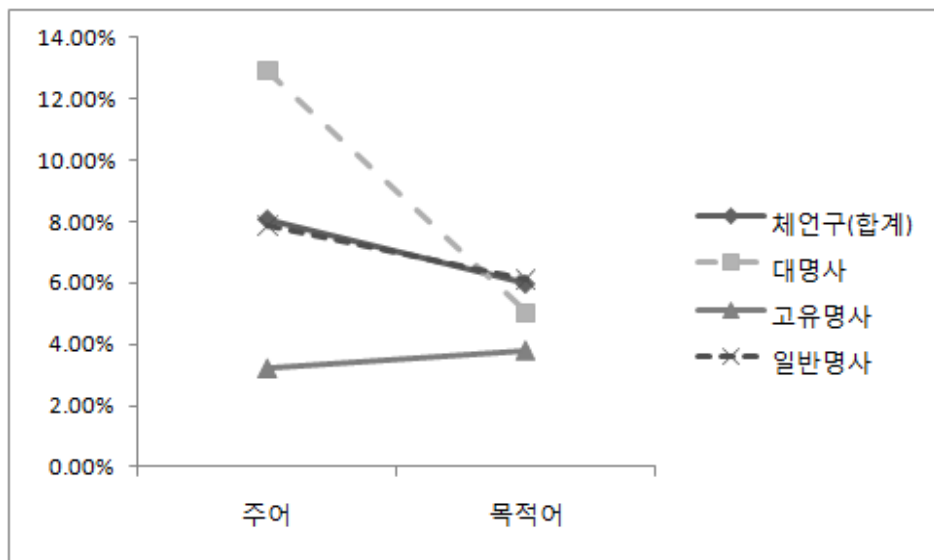
격조사구는 구조격의 형태적 조사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이 둘의 격 실현 방식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최기용 2006, 2007). 이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 격조사구를 격 할당으로, 보조사구를 격 인가로 보는 김의수(2002)가 있다.

이처럼 무조사구의 유일한 대립 관계를 격조사구로 한정하는 것은 보조사구를 이들과 다른 성격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의 의미를 격표지의 명시성에 따른 분포적 차이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명시적 격표지의 특성을 형태적 실현과 고정된 격 표상으로, 비명시적 격표지의 특성을 형태적 비실현과 고정되지 않은 격 표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어-목적어의 비대칭 분포의 격 실현의 명시성과 비명시성을 격표지로 한정해서 보는 관점으로 보인다.

〈표 2〉 무조사구와 격조사구 분포 비교

문법 관계	주어				목적어			
	무조사구		격조사구		무조사구		격조사구	
대립 관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체언구 (합계)	3,013	8.08%	34,274	91.92%	3,268	5.99%	51,310	94.01%
대명사	574	12.91%	3,872	87.09%	124	5.03%	2,341	94.97%
고유 명사	100	3.22%	3,001	96.78%	66	3.79%	1,675	96.21%
일반 명사	2,339	7.86%	27,401	92.14%	3,078	6.11%	47,294	93.89%

〈표 2〉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주어와 목적어에 분포하는 무조사구와 격조사구를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 구성 체언구로 분류하고, 이를 합산한 전체 체언구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1〉은 〈표 2〉에서 제시된 격조사구와 비교한 무조사구의 상대빈도를 주어와 목적어로 구분한 도표이다. 〈표 2〉와 〈그림 1〉에서 격조사구와 비교한 전체 무조사구의 상대빈도는 주어 8.08%와 목적어 5.99%로 기존 논의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무조사구의 우세한 목적어 분포와는 다르다. 또한 체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포가 가장 많아 전체 체언구와 유사한 분포적 특성을 보이는 일반명사의 상대빈도도 주어 7.86%, 목적어 6.11%로 목적어에 비해 주어 분포가 우세하다.



〈그림 1〉 격조사구 대립 관계: 주어-목적어 무조사구 분포

그러나 한정성과 문법관계 위계에 기반한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분포는 고유명사를 제외한 대명사와 일반명사에서는 관찰된다. 대명사 구성 무조사구는 주어에서 12.91%로 일반명사 구성 무조사구 7.86%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목적어에서 5.03%로 일반명사 구성 무조사구 6.11%에 비해 적은 분포를 보인다. 이는 주어에서는 한정성이 가장 강한 대명사의 무조사구 분포가, 목적어에서는 한정성이 가장 약한 일반명사의 무조사구 분포가 가장 우세하다는 한정성과 문법관계 위계에 따른 일반적 예측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무조사구의 대립 관계를 격조사구만으로 한정할 경우, 기존 논의에서 관찰되고 있는 주어보다 목적어에서 무조사구 분포가 선호된다는 일반적인 그리고 일반명사 구성의 무조사구 분포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를 격표지의 명시성에 따른 분포적 차이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무조사구 분포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무조사구를 격조사 생략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조사구에 대한 문법적 지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만약 무조사구를 격조사 생략으로 보는 관점이 적법한 것이라면, 적어도 전체 체언구의 분포적 특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일반명사 구성 체언구의 무조사구 분포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4.2. 격 표상의 고정성

무조사구의 가능한 두 번째 대립 관계는 보조사구를 무조사구의 또 다른 형태로 보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체언구가 격조사구와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는 것이다. 이는 격 표상의 고정성에 따라 명시적인 격의 실현과 비명시적인 격의 실현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격조사구를 명시적인 격 실현으로, 그리고 무조사구 및 보조사구를 비명시적인 격 실현으로 볼 수 있다.

통합관계만으로도 격 실현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무조사구를 부정격(안병희 1966, 이남순 1998) 또는 무표격(민현식 1982, 김영희 1991)으로 보는 입장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논의에서도 보조사구가 부정격/무표격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석주 2001). 그러나 부정격/무표격과 이에 대립하는 정격/유표격의 구분이 명시적으로 격을 표상하는 격조사의 실현에 근거하므로, 보조사구를 무조사와 함께 비명시적인 격의 실현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조사구와 무조사구를 비명시적인 격의 실현으로 본다면, 형태론적으로 무조사구는 영형태의 격 표지이고, 보조사구는 무조사구에 보조사가 결합된 구성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임홍빈(2007)에서는 무조사구가 격이 없는 제시 화제로, 임홍빈(1999)에서는 보조사구도 격이 없는 화제로 보는 만큼, 무조사구와 보조사구의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임홍빈(2007)에서는 무조사구는 격조사구와 대립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sup>17)</sup>, 이 절에서는 무조사구와 보조사구를 동일 유형으로 간주한다.

<표 3>은 이와 같은 가정하에 무조사구와 보조사구가 동일 유형으로 보고, 격조사구에 대한 대립 관계로 주어-목적어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2>는 <표 3>을 기반으로 격조사구와 비교한 무조사구/보조사구의 상대빈도를 주어와 목적어로 구분하여 제시한 도표이다. 여기에서 체언구 전체,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 모두 주어 분포가 목적어에 비해 월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17) 한편, 무조사구를 격이 없는 제시 화제로 보는 임홍빈(2007)에서는 다음의 무조사구 조건을 통해 격조사이든 보조사이든 조사를 가지지 않으면서 격조사구와 대립하는 것을 무조사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구는 무조사구와 마찬가지로 격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도, 무조사구는 격조사구와 대립을 보이는 것에만 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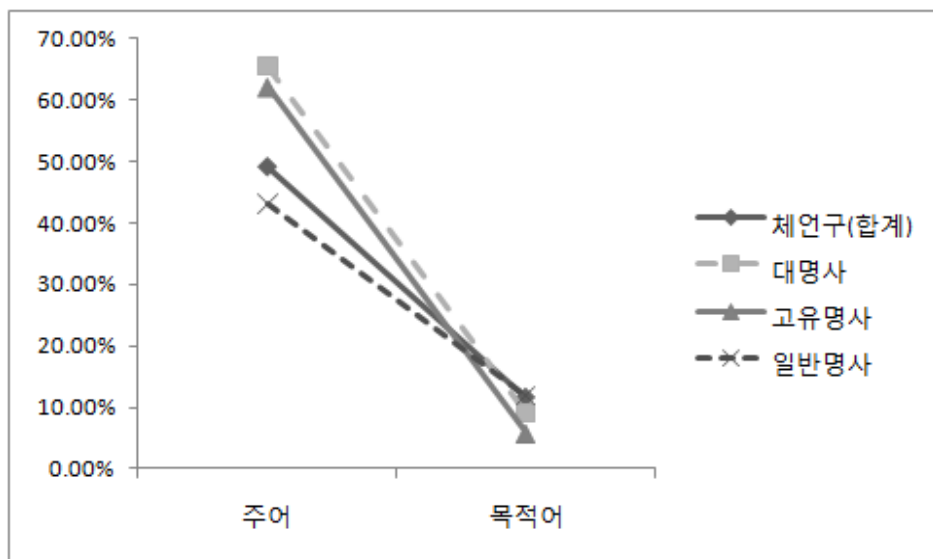
무조사구 조건(임홍빈 2007: 70)

- (i). 무조사구는 아무런 조사도 가지지 않은 명사구를 말한다.
- (ii). 무조사구는 격조사를 가지는 논항 조사구와 대립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 예측뿐만 아니라, 일반명사 구성 무조사구 분포에 대한 예측과도 정반대의 결과이다.

〈표 3〉 무조사구/보조사구와 격조사구 분포 비교

문법 관계	주어				목적어			
	무조사구/ 보조사구		격조사구		무조사구/ 보조사구		격조사구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체언구 (합계)	33,056	49.10%	34,274	50.90%	6,675	11.51%	51,310	88.49%
대명사	7,353	65.51%	3,872	34.49%	233	9.05%	2,341	90.95%
고유 명사	4,934	62.18%	3,001	37.82%	103	5.79%	1,675	94.21%
일반 명사	20,769	43.12%	27,401	56.88%	6,339	11.82%	47,294	88.18%



〈그림 2〉 격조사구 대립 관계: 주어-목적어 무조사구/보조사구 분포

그러나 주어에서는 한정성 위계에 따라 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는 각각 65.51%, 62.18%, 43.12%의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목적어에서는 지시성 위계 역순이 준수되지 않고, 일반명사 11.82%, 대명사 9.05%, 고유명사 5.7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에서 고유명사를 구성하는 어휘의 제한적 의미부류로 인해 목적어 분포의 특이성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무조사구/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분포에 대한 한정성 효과는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격조사구와 무조사구/보조사구의 대립 관계에서도 기존 논의에서 관찰되고 있는 전체 체언 및 일반명사의 무조사구 분포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를 격 고정성에 따른 분포적 차이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무조사구와 보조사구를 동일 유형의 격 실현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4.3. 형태적 실현성

무조사구와 관련하여 검토할 마지막 대립 관계는 형태적 실현성에 기반하여 명시적인 격의 실현을 격조사구와 보조사구로, 비명시적인 격의 실현을 무조사구로 보는 것이다. 이 대립 관계는 형태적 실현성 외에도 격조사구와 보조사구에 유사성이 있다는 가정이며, 이에 기반하여 격조사구와 무조사구가 구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격조사는 체언구의 통사관계를, 보조사는 체언구의 의미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무조사구와 격조사구는 형태적 명시성을 제외하고, 동일한 문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인해 무조사구를 격조사 생략이나, 격조사 비실현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다르게 격조사가 주의 집중, 강조와 같은 의미기능을 표상한다는 견해도 있다(신현숙 1982, 이남순 1998, 목정수 1998, 고석주 2001 등). 이는 격조사구가 보조사구와 마찬가지로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격조사구의 의미적 기능으로 인해 무조사구와 동일한 문법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남순(1998)에서는 예문 (9-10)을 통해 무조사구와 격조사구의 의미적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무조사구인 (9-가)와 (10-가)는 일반적인 의미이며, 보다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격조사구 (9-나)와 (10-나)로 사용한다고 한다. 격조사구로 제시되는 (9-나)는 청자의 흡연을 의외의 사실로 여길 경우 사용되며, (10-나)는 정류장 부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줄을 설 때와 같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18) 그러나 관찰 표본에서 격조사구가 68.30%, 보조사구 26.69%, 무조사구 5.01%의 보이므로 이러한 한정성 효과가 보조사구에 의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바뀌었다고 판단할 경우 쓰인다고 본다.

- (9) 가. 담배 피우세요?  
나. 담배를 피우세요?
- (10) 가. 버스 왔니?  
나. 버스가 왔니?

이러한 측면에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조사 ‘-는, -도’를 동일한 부류인 한정사로 다루고 있는 목정수(1998)의 연구가 형태적 실현성에 기반한 무조사구의 대립 관계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목정수(1998)은 체언구를 체언에 격조사와 한정사가 함께 결합되는 구성으로 보고 있다. 무조사구는 (11-가, 나)의 격조사 Ø1와 한정사(다른 한정사가 선택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Ø2가 결합되는 것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격조사구는 격조사 Ø1와 한정사 ‘-이/가, -을/를’이 결합되는 것으로, 그리고 보조사구는 격조사 Ø1와 한정사 ‘-은/는, -도’가 결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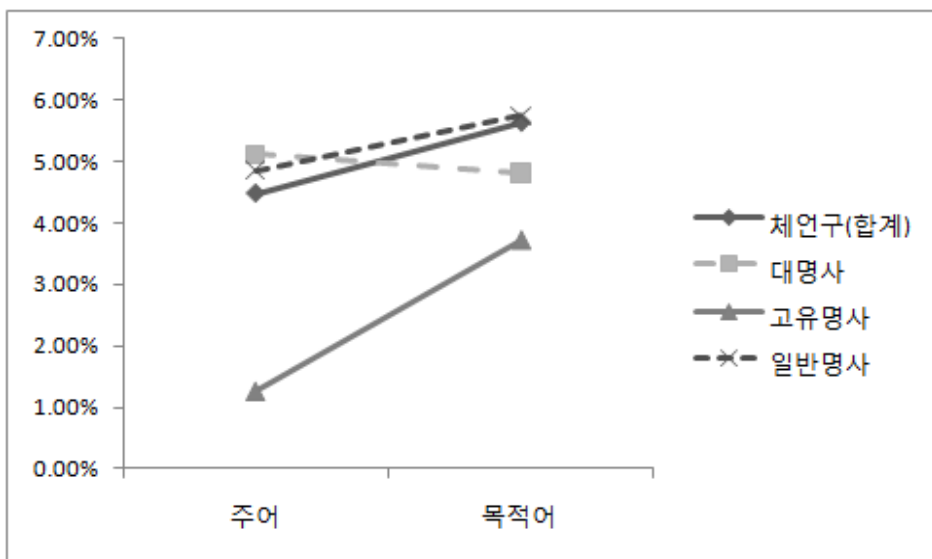
- (11) 목정수(1998)의 격조사와 한정사 분류  
가. 격조사: Ø1, -의, 의미격 조사  
나. 한정사: Ø2, -이/가, -을/를, -은/는, -도

표 4. 무조사구와 조사구 분포 비교

문법 관계	주어				목적어			
	무조사구		조사구		무조사구		조사구	
대립 관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빈도	상대 빈도
체언구 (합계)	3,013	4.47%	64,317	95.53%	3,268	5.64%	54,717	94.36%
대명사	574	5.11%	10,651	94.89%	124	4.82%	2,450	95.18%
고유 명사	100	1.26%	7,835	98.74%	66	3.71%	1,712	96.29%
일반 명사	2,339	4.86%	45,831	95.14%	3,078	5.74%	50,555	94.26%



〈표 4〉는 격조사구와 보조사구를 동일 유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립 관계로 무조사구와 비교한 주어-목적어 분포이다. 〈그림 3〉은 〈표 4〉의 분포를 기반으로 주어와 목적어에서 무조사구와 조사구(격조사구/보조사구) 사이의 상대빈도를 제시한 것이다. 이전의 두 대립 관계와 달리 체언구 전체와 일반명사로 구성된 체언구에서 주어보다 목적어의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 주어와 목적어에서 체언구 전체의 무조사구는 4.47%와 5.64%의, 그리고 일반명사 구성의 무조사구는 4.86%와 5.74%의 분포를 보인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관찰되고 있는 주어보다 목적어에서 우세한 일반적인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와 일치한다.



〈그림 3〉 조사구 대립 관계: 주어-목적어 무조사구 분포

또한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대명사와 일반명사의 주어와 목적어 분포의 비대칭성은 분명하게 관찰된다. 주어에서 대명사 구성의 무조사구는 5.11%로 일반명사 구성의 무조사구 4.86%보다 우세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목적어에서는 일반명사 구성의 무조사구가 5.74%로 대명사 구성의 무조사구 4.82%보다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 물론 주어에서는 대명사 구성의 무조사가, 목적어에서는 일반명사 구성의 무조사가 가장 우세한 무조사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는 형태적 실현성에 따라 격 실현의 명시성과 비명시성을 구분할 때 가장 분명하게 관찰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관찰되고 있는 무조사구의 비대칭 분포 결과가 격조사구와 무조사구의 대립 관계에서보다 형태적 실현성에 기반한 무조사구와 조사구의

대립 관계에서 명확하게 관찰된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무조사구의 비대칭 분포의 의미를 격표지 차원이 아니라, 격 실현 차원에서 형태적 실현에 따라 구분되는 분포로 파악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비대칭 분포는 고정된 격 표상과 관계없이 형태적 실현 여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어와 목적어에 분포하는 체언구의 유효성에 따라 조사가 형태적으로 표지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분포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무조사구의 이러한 대립 관계가 무조사구의 문법적 지위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조사구의 분포가 무조사구 비대칭 분포에 기여하는 것을 보면, 보조사구가 무조사구와 일정한 문법적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무조사구를 격조사 생략이나 비실현으로 보는 관점과 같이 보조사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 4.1절의 격조사구와 무조사구의 대립 관계에서 일반명사 구성 무조사구 분포가 주어보다 목적어에서 우세한 분포를 보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무조사구를 격조사구에 의존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을 탈피해서, 조사구 전체의 대립적 관점에서 무조사구에 대한 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보조사구 분포가 이러한 비대칭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격 실현 체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를 척도로 하여 무조사구, 격조사구, 보조사구로 구성되는 형태적 격 실현 체계의 대립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간의 연구에서 이러한 분포를 대체적으로 명시적 격표지와 비명시적 격표지의 분포적 차이로 이해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성은 조사의 형태적 실현과 비실현에 따른 분포적 차이로 관찰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분포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무조사구의 비대칭 분포가 고정된 격 표상과 관계없이 형태적 실현 여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측면에서 무조사구의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를 통해 격조사구와 무조사구의 출현 환경을 검토해온 그간의 논의들은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어

19) 물론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것처럼 개별 보조사의 특성을 두루 살필 필요는 있다. 이는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보인다. 즉, 격이 명시적으로 격조사에 의해 표지되었다는 측면이 아니라, 조사가 형태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측면에서 다시 접근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관찰 결과를 통해 무조사구가 형태적으로 조사가 실현되는 격조사구 및 보조사구와 대립 관계를 형성하며, 일정한 문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조사구를 대체적으로 격조사 생략이나 비실현으로 보는 기존 논의와 다르게 무조사구의 문법적 특성을 이러한 대립 관계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한 세 가지 대립 관계, 즉, 첫째, 형태적 실현성과 격 표상의 고정성에 따른 무조사구와 격조사구의 대립 관계, 둘째, 격 표상의 고정성에 따른 격조사구와 무조사구/보조사구의 대립 관계, 셋째, 형태적 실현성에 기반한 무조사구와 격조사구/보조사구의 대립 관계에서 모두 한정성 위계와 관련된 주어-목적어 비대칭 분포가 유효하게 관찰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어떠한 대립 관계에서도 한정성 위계와 관련한 비대칭 분포가 관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석주. 2001. 「한국어 조사의 연구: ‘-가’와 ‘-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재일. 2006. “구어 문법과 조사의 생략.” 편집위원회 편, 「국어학논총: 이병근 선생 퇴임기념」, 태학사, 429-446.
- 김영희. 1991. “무표격의 조건.” 「언어 논총」 9, 5-32.
- 김의수. 2002. “국어의 격 허가 기제 연구.” 「국어학」 39, 국어학회, 49-74.
- 김홍규 외. 2007. “21세기 세종계획 기초자료구축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목정수. 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한국언어학회, 47-78.
- 민현식. 1982. “현대 국어 격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9, 국어연구회.
- 신현숙. 1982. “목적격 표지 -를/의 의미연구.” 「언어」 7-1, 한국언어학회.
- 안병희. 1966. “부정격(Casus Indefinitus)의 정립을 위하여.” 「동아문화」 6.
- 이남순. 1998. “격 표지의 비실현과 생략.” 「국어학」 31, 국어학회, 340-360.
- 임동훈. 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국어학회, 119-154.
- 임홍빈. 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62.
- 임홍빈. 2007. “한국어 무조사 명사구의 통사와 의미.” 「국어학」 49, 국어학회, 69-106.

- 최기용. 2006. “한국어의 ‘명사+조사’ 구성의 구조.” 「생성문법연구」 16-3, 한국생성문법학회, 311-332.
- 최기용. 2007. “구조격 조사의 비출현: 구조격의 형태적 비실현.” 「생성문법연구」 17-2, 한국생성문법학회, 199-232.
- 홍용철. 1994. “융합 이론과 격조사 분포.” 「생성문법연구」 4-1, 한국생성문법학회, 1-43.
- 홍용철. 2005. “특수조사 ‘는’에 대한 통합적 분석.” 「생성문법연구」 15, 한국생성문법학회, 397-413.
- 홍정하. 2009. “문법관계와 체언의 유표성: 구문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연구.”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233-260.
- 홍정하·김주영·강범모. 2008. “세종 구문분석 말뭉치의 구축과 통사 범주 및 기능의 통계적 분포.” 「민족문화연구」 4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85-331.
- Ahn, Hee-Don & Sungeun Cho. 2007. “Subject-object Asymmetries of Morphological Case Realization.” *Language and Information* 11-1, 53-76.
- Aissen, Judith. 1999. “Markedness and Subject Choice in Optimality Theor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7, 673-711.
- Aissen, Judith. 2003. “Differential Object Marking: Iconicity vs. Econom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1, 435-483.
- Comrie, Bernard. 1978. “Genitive-accusative in Slavic: The Rules and their 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3, 27-43.
- Dixon, R. M. W. 1994. *Erg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Hanjung. 2006. “Parallel Optimization in Case Systems: Evidence from Case Ellipsi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5, 69-96.
- Silverstein, Michael. 1976. “Hierarchy of Features and Ergativity.” in R. M. W. Dixon(ed.), *Grammatical Categories in Australian Languages*,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Studies, Canberra, 112-171.
- Yang, In-Seok. 1972. *Korean Syntax: Case Marking,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Seoul: Paek Hap Sa.

소속: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접수일: 2010.02.03

게재결정: 2010.03.09